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 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### 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4월 생산자물가지수 예상외로 하락...마진 축소 탓
- YahooFinance: 파월, “미국이 잣은 공급망 충격 시대로 접어들어”

### [미국 금융]

- WSJ: “달러 약세는 국경 간 투자자 자금 흐름을 보여준다.”
- Bloomberg: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국채 금리 하락

### [뉴욕/뉴저지 메트로]

- CNNBusiness: 뉴저지 트랜짓 파업 가능성에 금요일 통근 우려

### [무역 관세]

- Bloomberg: 미·중 관세 충돌로 값싼 중국산 유럽으로 덤핑 가능성
- CNNBusiness: 트럼프 “인도, 미국에 ‘무관세’ 제의했다”

### [미국 생활]

- WSJ: 미국인, 다른 선진국 국민보다 수명 짧다

### [오일]

- WSJ: IEA, 관세 여파 완화로 올해 오일 수요 상향

### 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Bloomberg: 트럼프,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 중단 압박
- WSJ: 월마트, 상품 가격 올린다.
- WSJ: 월마트, AI 쇼핑 방식 준비

### [보고서]

- Bain & Company: 휴머노이드 로봇과 경영자 가이드라인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### [미국 경제]

#### Bloomberg: US Producer Prices Fell Unexpectedly in April as Margins

#### Shrank

#### 4월 생산자물가지수 예상외로 하락...마진 축소 탓

- 4월 들어 미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물가(도매 물가)가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. 주로 기업 마진이 줄어든 것으로 관세 여파에 따른 비용을 기업들이 어느 정도 흡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비용을 줄였다는 것이다.
- 오늘 연방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월에는 도매 물가가 변동이 없었으나 4월들의 도매 물가 지수가 0.5% 하락했다. 당초 예상치는 0.2% 상승이었다.
-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도매 물가 지수는 0.4%나 하락해 지난 2025년 이래로 최대폭으로 떨어졌다.

Bloomberg 기사

#### YahooFinance: Fed's Powell says US may be entering period of more frequent and persistent 'supply shocks'

파월, “미국이 잣은 공급망 충격 시대로 접어들어”

-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이 보다 잣은 공급망 충격과 변동성이 높은 인플레 시기로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. 이에 따라 연준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행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- 그는 미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광범위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면 이같이 밝혔다.

- 최근에 인플레이에 맞춰 고금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2010년대의 위기 때보다도 인플레 변동성이 더 심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.

YahooFinance 기사

**[미국 금융]****WSJ: Dollar Weakness a Symptom of Cross-Border Investor Flows**  
“달러 약세는 국경 간 투자자 자금 흐름을 보여준다.”

- Neuberger Berman strategists 자산 전략가들은 달러의 최근 약세는 국경 간 투자자의 자금 흐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.
- 이들은 이같은 흐름은 미 경제 성장 약세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미국의 위험 자산의 회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. 달러 투자자들이 국채에서 빠져나가고 주식으로 회귀할 때 미국의 위험 자산을 상승한다. 그러나 비달러 투자자들(non-dollar investors) 위험을 감수해 미국 시장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달러 자산으로의 유입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. 이는 미 주식은 상승하고 달러는 약세를 보인다는 의미다.
- 이들 전략가들은 올해 달러가 유로와 엔화 대비해 3~5%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.

WSJ 기사

**Bloomberg: Treasury Yields Fall as Data Support Fed-Cut Bets**  
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국채 금리 하락

- 미 인플레이션 둔화하고 소매업과 제조 활동이 약세를 보여주는 지표가 발표돼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- 국채는 단기채권의 하락 추세로 장·단기물의 국채가 상승하고 있다. 머니 마켓에 따르면 연준이 오는 9월부터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간 높아졌다.

Bloomberg 기사

**[뉴욕/뉴저지 메트로]****CNNBusiness: New Jersey rail strike could cause nightmare for commuters**  
뉴저지 트랜짓 파업 가능성에 금요일 통근 우려

- 뉴저지 트랜짓 엔지니어들이 금요일 시작되는 자정 직후 파업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뉴욕시 등의 10만명 통근자들에게 통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.
- 관련 노조원 87%가 지난 2019년 이래 첫 농급 인상을 하게 되는 임시 합의안에 거부하면서 11시간에 걸친 뉴저지 트랜짓 측과 엔지니어의 간의 합의 가능성 이 먼 상황이다.
- 트랜짓 측은 만약을 위해 통근자들이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. 뉴저지 트랜짓은 미국에서 3번째로 큰 통근 노선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뉴욕 시로 출근하고 있다.

CNNBusiness 기사

**[무역 관세]****Bloomberg: US-China Trade Clash Risks Making Europe Dumping Ground for Cheap Goods**  
미·중 관세 충돌로 값싼 중국산 유럽으로 덤플 가능성

- 현재 중국의 유럽에 대한 무역 흑자가 올해 4개월 동안 9백억 불에 달한다. 이와 관련해 유럽이 값싼 중국산을 위한 덤플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.

- 유럽 관리들은 미·중 관세 갈등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산 제품들이 유럽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.
- 미국의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중국의 유럽에 대한 무역 흑자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.

Bloomberg 기사

**CNNBusiness: Trump says India has offered America 'no tariffs'**  
**트럼프 “인도, 미국에 ‘무관세’ 제의했다”**

- 트럼프는 양국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인도가 미국산에 대해 무관세를 제의했다고 밝혔다.
- 트럼프는 카타르의 도하를 방문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같이 말했다.
- 트럼프는 인도의 경우 그동안 관세가 지나치게 높아 충분한 무역 거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. 현재 인도는 자동차에 70%, 수입산 쌀에 80%, 일부 네트워킹 장비에 20%를 매기고 있고 국내 수입업자들을 위해 무거운 규정 등 비관세 장벽을 시행하고 있다.

CNNBusiness 기사

**[미국 생활]**

**WSJ: How Chronic Disease Became the Biggest Scourge in American Health**  
**미국인, 다른 선진국 국민보다 수명 짧다**

- 미국인들은 다른 선진국 국민들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수명도 상대적으로 짧다.
- 부분적으로는 만성 질환 때문에 평균 예상 수명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다.
- 특히 과체중, 식습관, 신체 활동 부재, 비효율적인 의료 체계가 만성 질환 발생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.

WSJ 기사

**[오일]**

**WSJ: IEA Lifts Oil Demand View on Softer Tariff Impact, Lower Prices**  
**IEA, 관세 여파 완화로 올해 오일 수요 상향**

- 국제 에너지 기구(IEA)는 글로벌 석유 수요가 하루 평균 74만 1천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. 이는 이전 전망치인 72만 1천 배럴 보다 높은 수치이다. 미 관세의 영향 완화와 원유 공급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
-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상호 관세를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으며, 미국 원유 재고 증가로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이상 하락했다.
- 한편, 국제 에너지 기구(IEA)는 세계 원유 공급량의 경우 올해 하루 160만 배럴로 예상하며, 이 수치 또한 이전 보고서에서의 전망치 120만 배럴보다 높은 수준이다.

WSJ 기사

**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**

**Bloomberg: Trump Asks Apple to Stop Moving iPhone Production to India**  
**트럼프,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 중단 압박**

- 트럼프가 애플의 CEO인 Tim Cook에게 인도에 공장을 짓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. 미국 내 생산을 늘리도록 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것이다.

- 애플은 내년 말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아이폰 대부분을 인도에서 수입하려고 했다. 하지만 트럼프로 인해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.
- 기술 분석 회사 Counter Point의 리서치 디렉터 Tarun Pathak은 “트럼프의 익숙한 전략이다. 애플이 자국 내에서 공급망을 구축하여 현지 생산을 하도록 압박하는 것인데,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.”라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**WSJ: Walmart Plans to Raise Prices Because of Tariffs**

월마트, 상품 가격 올린다.

- 월마트가 이번 달과 이번 여름 초 관세 영향을 받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다. 이미 관세로 인해 일부 상품 가격을 인상한 상황 속에서 가격 인상을 확대하는 조치이다.
- 이번 주 초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잠정적으로 145%에서 30%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, 이는 여전히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을 가져다줄 수 있다.
- 월마트 CFO John David Rainey는 “이러한 가격 인상은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와 수준이다.”라고 말하며 아직 무역전쟁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.
- 한편, 월마트는 다른 소매 체인과는 달리 올해 전체 기간의 매출과 수익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았다.

WSJ 기사

**WSJ: Walmart Is Preparing to Welcome Its Next Customer: The AI Shopping Agent**

월마트, AI 쇼핑 방식 준비

- 월마트는 소비자를 대신해 AI에이전트(도구)가 쇼핑하게 될 시나리오에 대비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. 월마트 CTO인 Hari Vasudev는 “광고가 진화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- 미래에는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선호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, 자체적으로 제품을 찾고 구매를 완료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.
- 따라서 월마트는 이를 위해 고객이 앱과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체 쇼핑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있으며, 제 3자 쇼핑 대행사를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.

WSJ 기사

**[보고서]****Bain & Company: Humanoid Robots at Work: What Executives Need to Know**

휴머노이드 로봇과 경영자 가이드라인

- 휴머노이드 로봇이 확장되어 산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경영진은 해당 기술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, 프로토타입을 실험해야 하며, 로봇 도입 가능성을 주요 사업에 반영시켜야 한다.
- 그렇다면 왜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요해지고 있을까?
- 첫번째로, 인구구조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. 주요 국가에서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있으며, 고령층 대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. 결국 2030년 까지 제조업 분야에서 약 800만 명의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. 이는 자동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, 휴머노이드 로봇이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.
- 게다가 선진국들, 그 중 특히 미국은 관세나 국내 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자국의 제조업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.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경쟁력 있는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 이러한 노동력 공백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채울 수 있다.
- 두번째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. AI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고도로 훈련시킬 수 있게 되면서 휴머노이드의 이동성과 정밀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여 거의 인간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.

- 세번째로, 휴머노이드 로봇이 비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. 2022년부터 2024년 까지 로봇 1단위를 생산하는 비용이 최소 40% 감소한 반면에 EU의 노동비용은 5% 증가했다.
- 이처럼 변화하는 인구 구조의 변화, 성능 향상, 생산 비용 절감이 강력한 수요를 이끌고 있으며 그에 맞춰 생산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.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기간에 대규모 인력을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증가하는 성능 및 비용 경쟁력은 그들이 3-5년 내에 물리적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.
-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들은 지금부터 이러한 로봇 기술을 탐구하고 실험해야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.

Bain &amp; Company

**다시 뛴 미국 국채 금리...2년물·10년물 모두 상승**  
**2년물 금리는 3월 이후, 10년물은 한달만에 최고치**  
**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 감소에 재정적자는 확대 전망**  
**달러화 약세 전환, 원화에 대해선 강세**

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데다 미국 재정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했다.

2년 만기 국채 금리는 3월 이후,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.

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4일(현지시간) 채권시장에서 미국 국채 금리는 만기별로 5~7bp(1bp=0.01%포인트) 상승했다.

연준 금리 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의 경우 금리가 연 4.06%에 달해 지난 3월 이후 가장 높았다.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번 주에만 15bp 올랐다.

월가 금융사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늦춰 잡은 것이 2년물 금리를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분석된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